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Kstat Report

사회지표 ‖ 2023년 5월 18일

케이스탯
2023년 5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6%, 소폭 상승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3%, 횡보
_ **정부 신뢰도** : '불신' 73%, 소폭 상승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4%, 횡보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없다' 75%, 5%p 상승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0%, 소폭 하락
_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30%, 소폭 상승
_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35%, 4%p 상승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4%, '고통' 26%, '번창' 10%

■ 5월 특별지표 : 국민의 '불안 의식' 진단

_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68%
_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72%로 가장 높아
_ 불안감,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아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5월 5일(금) ~ 5월 7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04%p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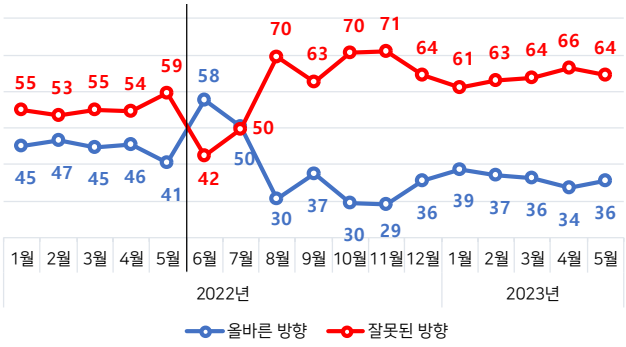
Kstat
케이스탯

5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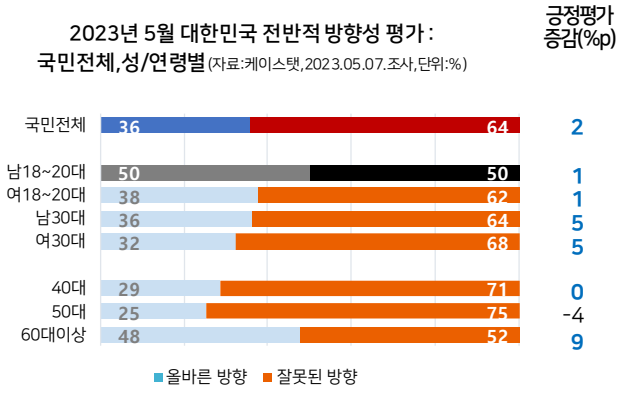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6%, 소폭 상승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소폭 상승하며, 4개월 만에 반등함
  - 2023년 5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6% vs '잘못된 방향' 64%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50세대 △경기·인천,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뿐인 가운데, △60대 이상 △서울, TK, PK △학생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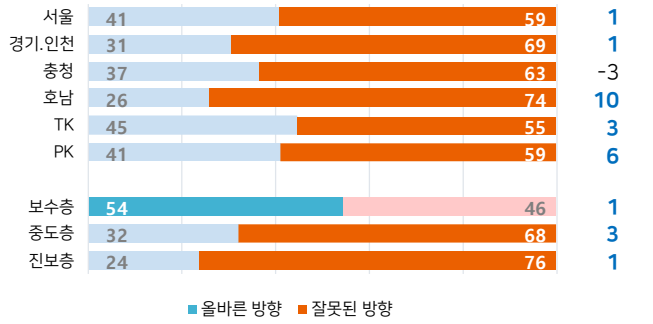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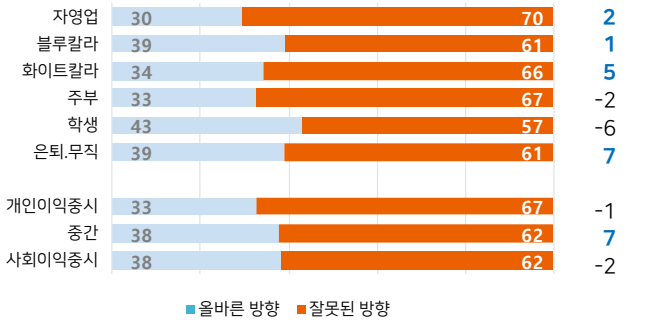
2023년 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5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단위:%)



5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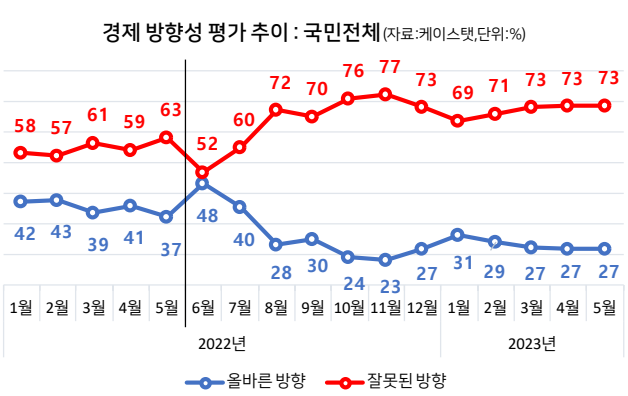
☑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 달 증가하며 36%를 기록함
: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작년 6월 이후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작년 6월에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평가가 급격히 상승해 58%를 기록했으며, 이후 2개월 연속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30%까지 감소한 뒤 올해 들어서는 30% 중후반 선을 회복한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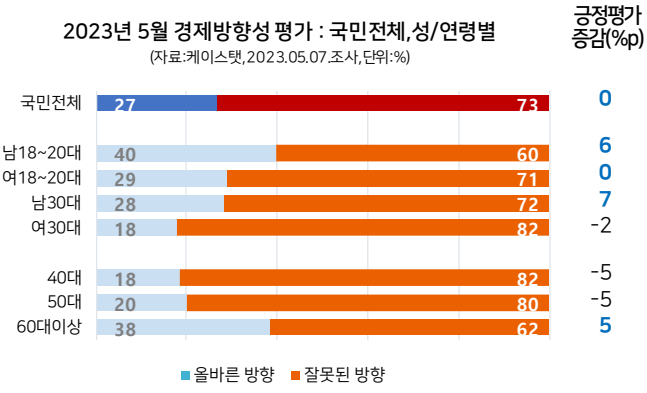
☑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됨
: 최근 조사 결과*,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40%대)이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30%대)보다 높았는데, 정부가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어느 정도 부응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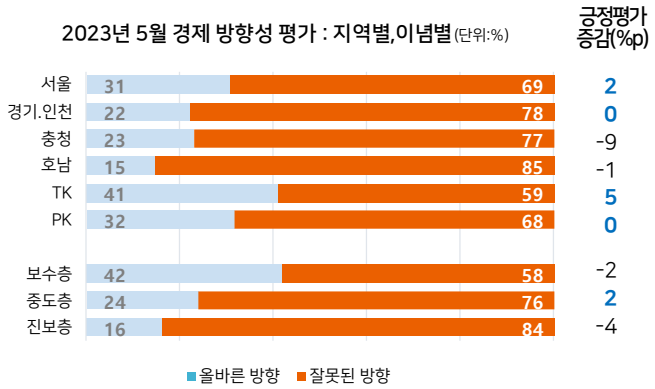
※자료 : 지난 1년간 국정운영 긍정평가 39.1%(한국리서치), 남은 임기 국정운영 기대감 46.0%, 43.0%(각 한국리서치, 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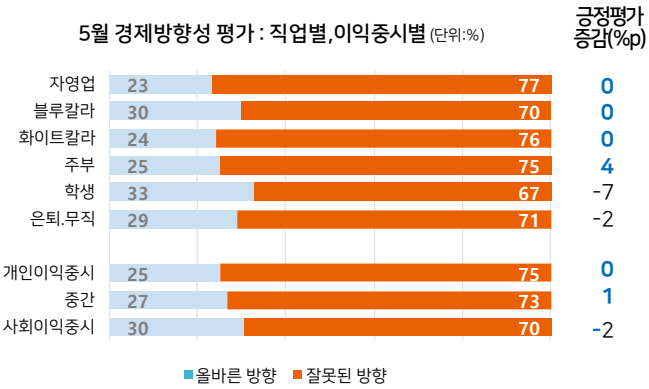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3%, 횡보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 27%, '잘못된 방향' 응답 73%를 기록하며 최근 3개월 연속 동일 수준을 유지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4050세대 △경기·인천, 호남 △진보층 등임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TK, PK △보수층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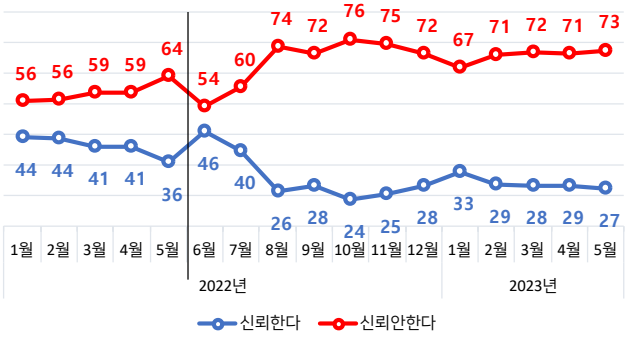
Kstat Point

☑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최근 3개월 연속 73%에서 횡보하고 있음
☑ 지난 2월 '경기둔화'를 공식화한 정부도 넉 달 연속 동일한 경기 진단을 내놓음
: 지난 2월 이후 기획재정부 발간 그린북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2월 '경기 흐름 둔화', 3월~4월 '경기둔화 흐름 지속', 5월 '경기둔화 지속'이라고 밝혔음
☑ 다만, 올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일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밝혔는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며 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점차 개선될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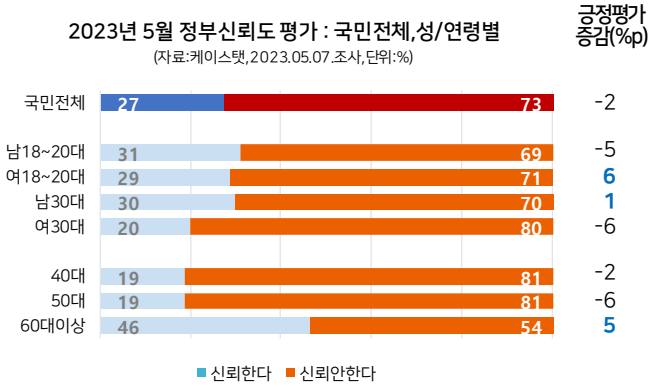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불신' 73%, 소폭 상승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며, 지난 1월 이후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임
  - 5월 조사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 27% vs '신뢰하지 않는다' 73%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50세대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서울, TK, PK △학생 △사회이익중시층 등이었음
  - △보수층은 긍·부정 응답이 각각 49%, 51%로 비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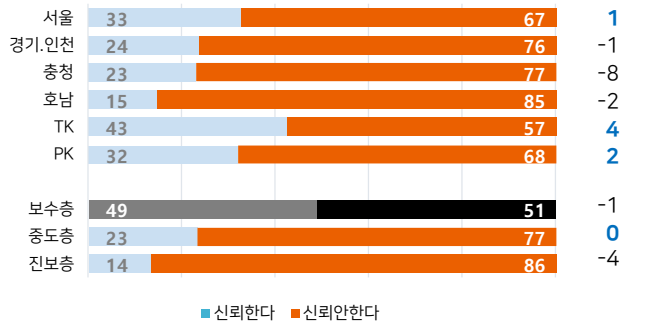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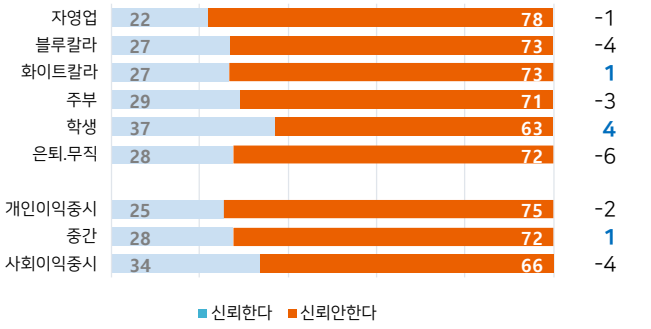
2023년 5월 정부신뢰도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2023년 5월 정부신뢰도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5월 정부신뢰도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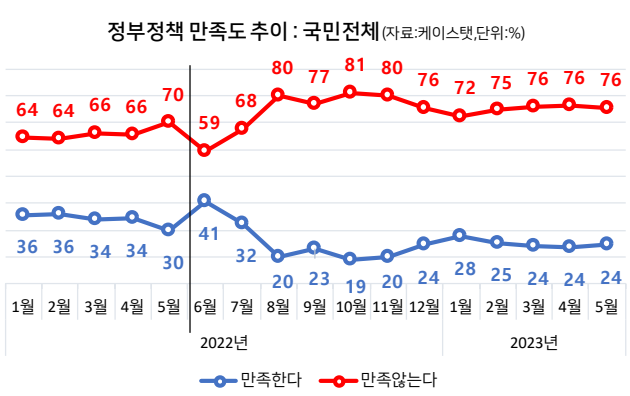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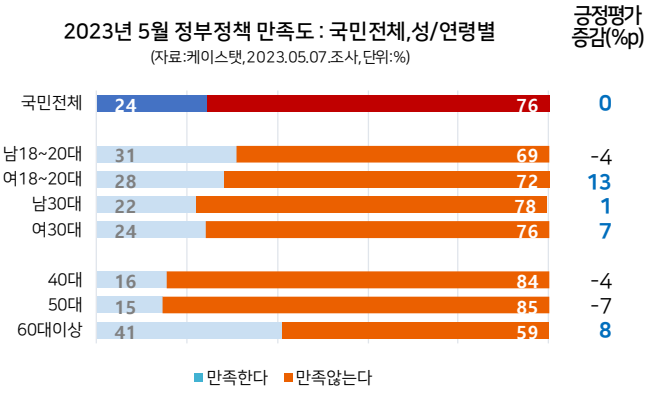
☑ 작년 하반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인 정부 신뢰도가 올 1월 30%를 웃돌다 이내 하락하며, 이후 20% 후반대의 박스권에 갇혀있음
: 이번 달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경제 방향성', '정책 만족도'와 관련한 국민 여론은 소폭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정부 신뢰도'는 부정 여론 비중이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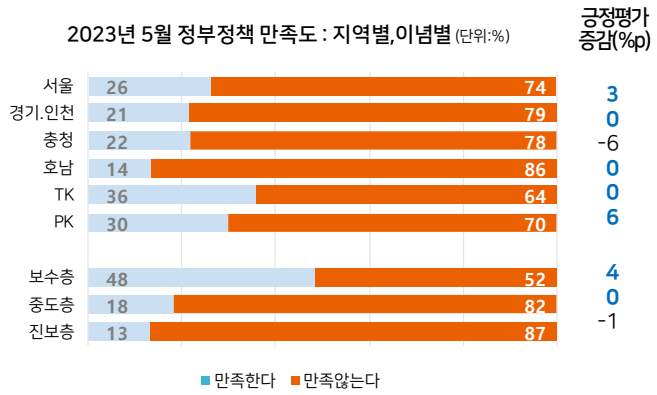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 삶·생활과 직결된 민생 개선, 경제 활성화 등 내치보다 외치에 상대적으로 주안점을 둔바, 이와 관련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 지난 1년간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들을(한국갤럽,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살펴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긍정평가가 높았고, 민생·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낮았음
: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민생·경제 문제(한국리서치, 넥스트리서치, PMI 등)는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이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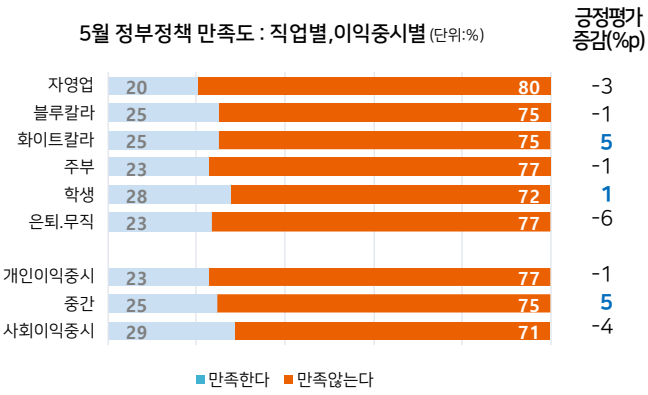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4%, 횡보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최근 3개월 연속 24%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50세대 △호남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높았음
- '만족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TK, PK △보수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이었음









Kstat Point

☑ 정책 만족도가 최근 3개월 연속 24%의 동률을 기록하며 개선되지도 악화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은 정부가 향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경제를 꼽았는데, 경기둔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 및 정책을 민생·경제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집권 2년 차에는 민생·경제에 주력하길 바라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지점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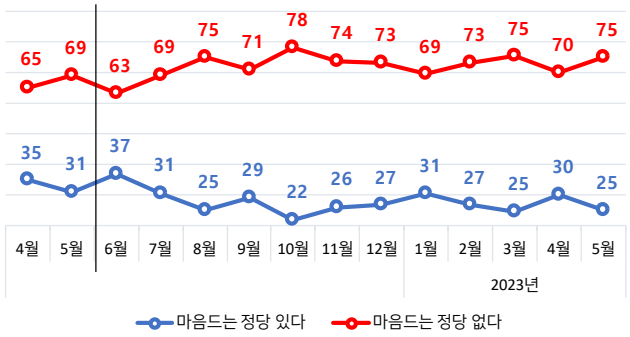
: 정부 출범 1주년 관련 조사 결과,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경제'가 50%대의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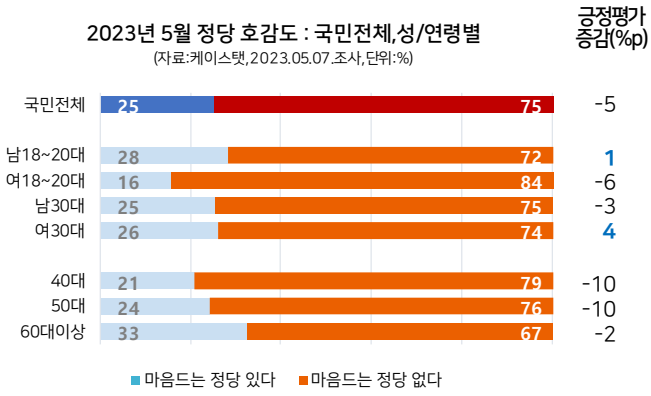
: (한국리서치) '경제·물가·일자리' 58.6%('물가 안정' 30.4% +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28.2%), '야당과의 협치'(12.9%), '대북관계·외교안보 정책'(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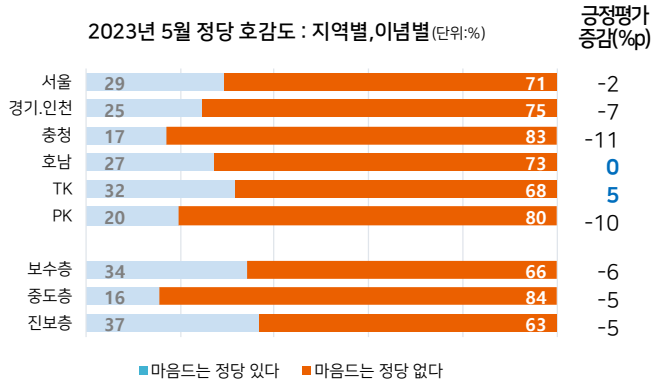
: (넥스트리서치) '경제' 51.3%, '국방·안보'(13.3%), '사회통합'(11.3%), '외교'(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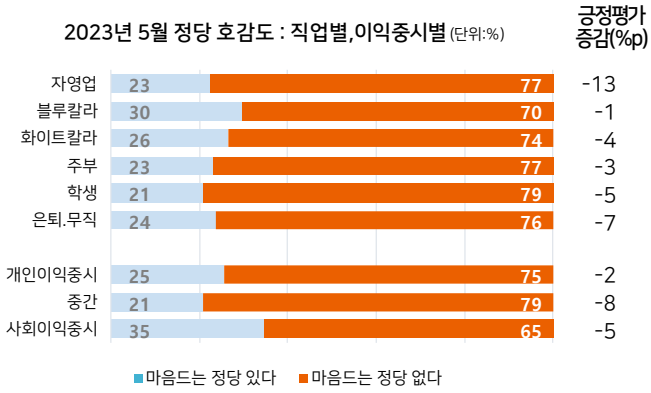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없다' 75%, 5%p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큰 폭(5%p) 내리며, 25%를 기록함
  - 5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25%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5%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18~20대 △40대 △충청, PK △중도층 △학생 △중간이익 중시층 등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서울, TK △보수층, 진보층 △블루칼라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Kstat Point

☑ 정당 비호감도가 계층 대부분에서 오르며, 유의미한 상승률(+5%p)을 보임
: 여자 20대, 4050세대, 경기·인천·충청·PK, 보수·중도·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정당 호감도가 큰 폭 하락함
: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정당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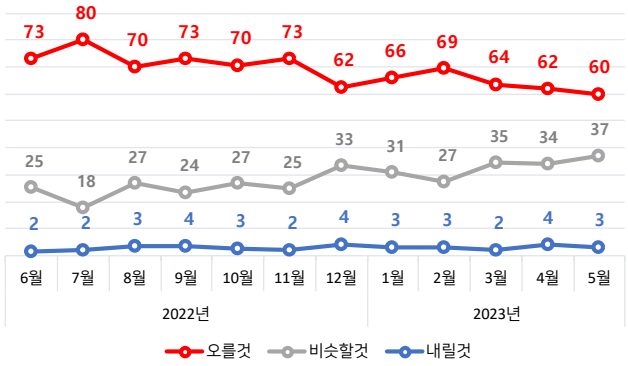
☑ 국민의힘은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빚은 후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당 지도부·하태경 의원 간 갈등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어 현시점에서 여당에 대한 국민 호감도 상승 여력이 작은 것으로 보임

☑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이 더해진 가운데, 코인 사태에 대한 지도부 대응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더민주당에 대한 여론 또한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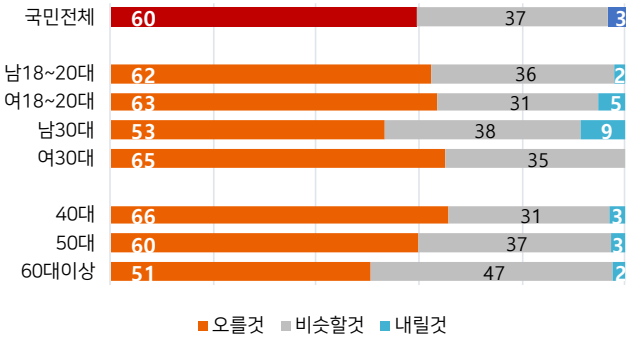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0%, 소폭 하락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과 '내릴 것' 응답은 소폭 하락,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소폭 상승함
  - 5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60%, '지금과 비슷할 것' 37%, '지금보다 떨어질 것' 3%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충청, 호남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60대 이상 △TK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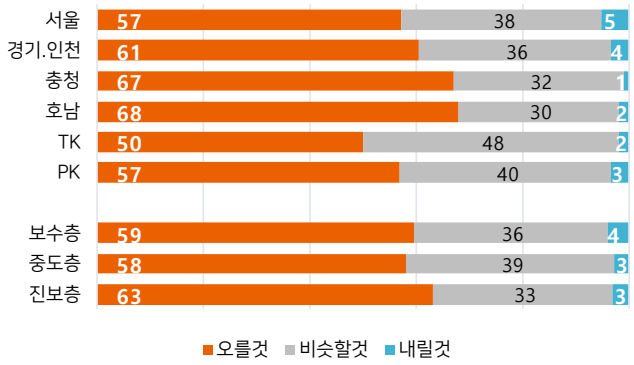
'익월 물가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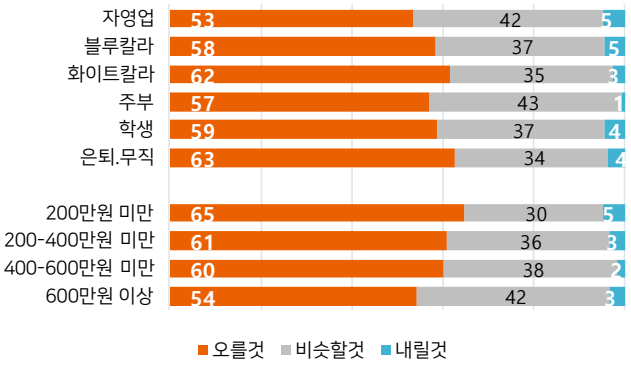
2023년 5월 '익월 물가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2023년 5월 '익월 물가 전망' : 지역별,이념별 (단위:%)



2023년 5월 '익월 물가 전망' : 직업별,소득별 (단위:%)



Kstat Point

☑ 국민은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개월 동안 물가상승 전망세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과 비교해 이번 달 큰 폭으로(-9%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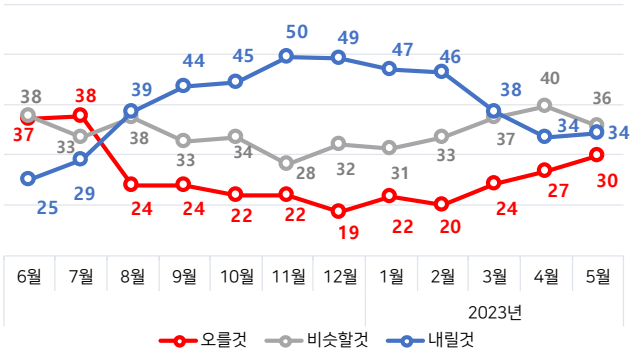
☑ 실제로 최근 인플레이션도 둔화되는 모습임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한 3.7%를 기록함

☑ 다만, 국민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고 최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된바, 물가상승 전망이 다음 달에도 하락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적지 않은 국민이(46.5%) 물가가 5% 이상 상승했다고 인식했음
: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끌어올릴 것(+0.1%p)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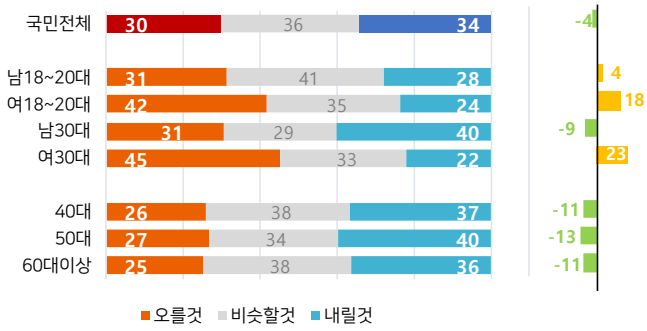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30%, 소폭 상승

- 부동산 가격 전망 관련,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이 최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5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36%, '지금보다 내릴 것' 34%, '지금보다 오를 것' 30%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계층별 응답이 엇갈린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특히 높은 계층은 △40대 이상 △경기·인천, PK △진보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월평균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뚜렷했음
-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충청, 호남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이었음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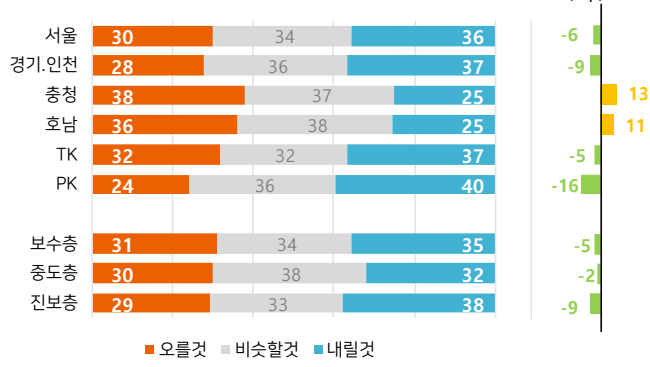


2023년 5월 '향후 부동산가격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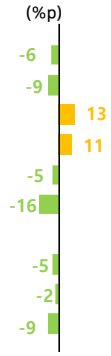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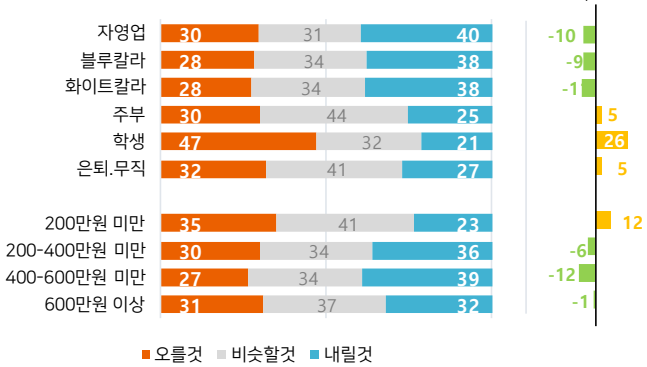
5월 '향후 부동산 전망': 지역별,이념별(단위:%)



상승-하락 (%p)



5월 '향후 부동 산 전망': 직업별,소득별(단위:%)



상승-하락 (%p)

Kstat Point

☑ 작년 말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 매수세와 매매심리도 최근 들어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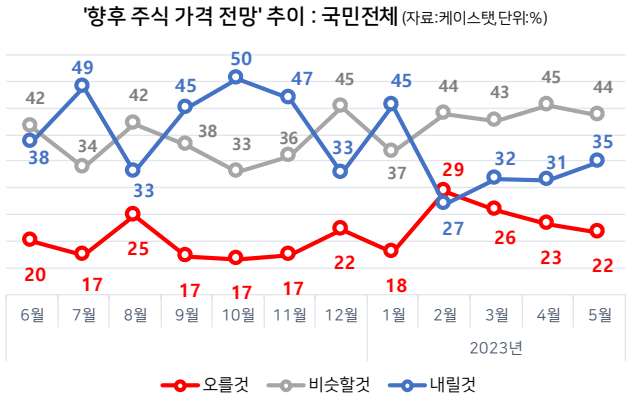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이 4월 1주(-0.22%) 이후 매주 낙폭이 줄어들며 5월 2주에는 -0.07%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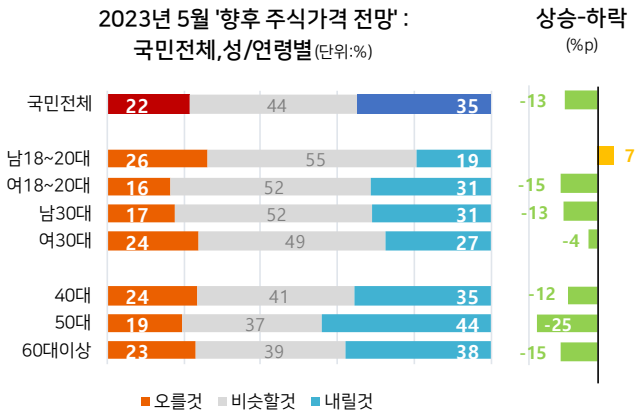
: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2월(102.1) 100을 넘은 후에도 지속 상승해 4월에는 전월보다 4.1p 오른 107.7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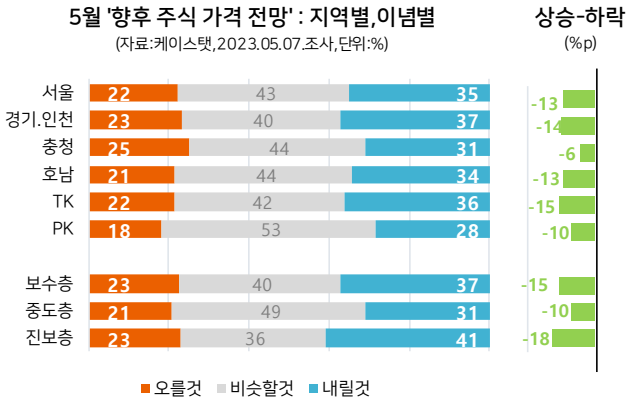
☑ 이와 관련해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 효과를 낸 결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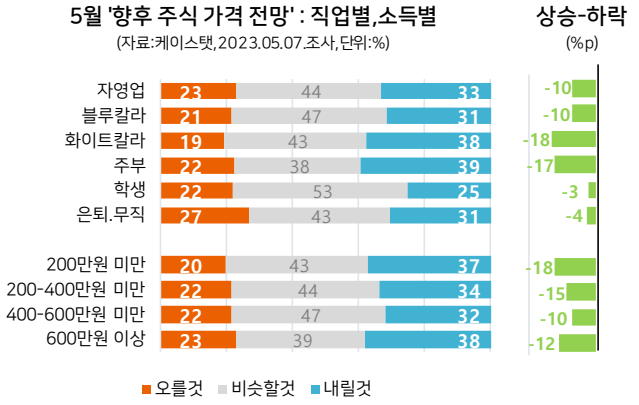
❑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35%, 4%p 상승

-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과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소폭 하락하고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큰 폭 상승함
  - 5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4%, '지금보다 내릴 것' 35%, 지금보다 오를 것' 22%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식 가격 하락 전망이 높은 가운데, 특히 △50대 △진보층 △화이트칼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두드러짐
-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뿐이었음









Kstat Point

☑ 지난 2월 이후 주식 가격 하락 전망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 실제로 이달 들어 주식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5월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약9조1천억원)이 지난달(약12조6천억원)과 비교해 약 28% 감소함

: 시장의 투자심리가 약화한 배경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조정,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지연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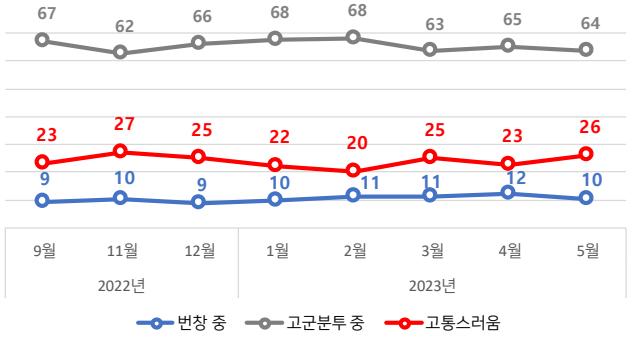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4%, '고통' 26%, '번창'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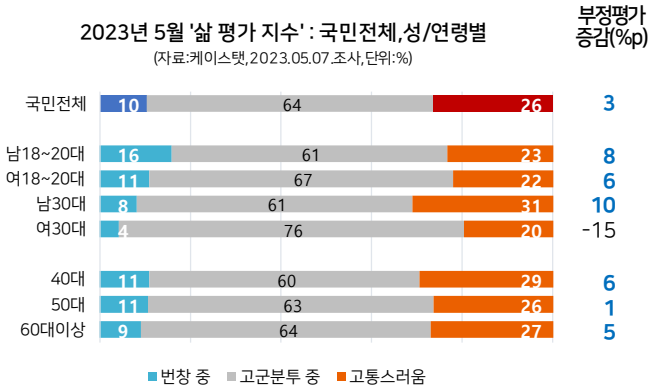
-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응답과 '번창 중' 응답은 소폭 감소하고, '고통스럽다' 응답은 소폭 증가함
  - 5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4%, '고통스럽다' 26%, '번창하고 있다' 1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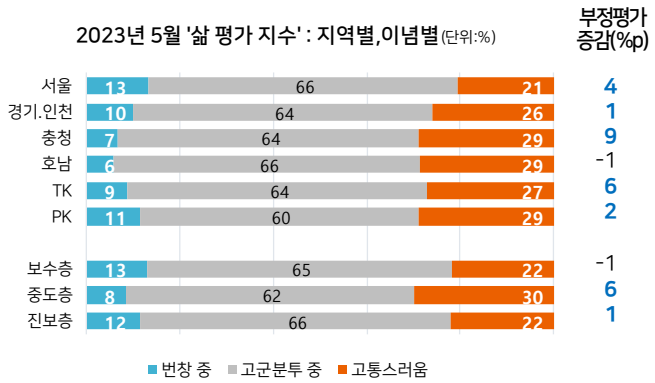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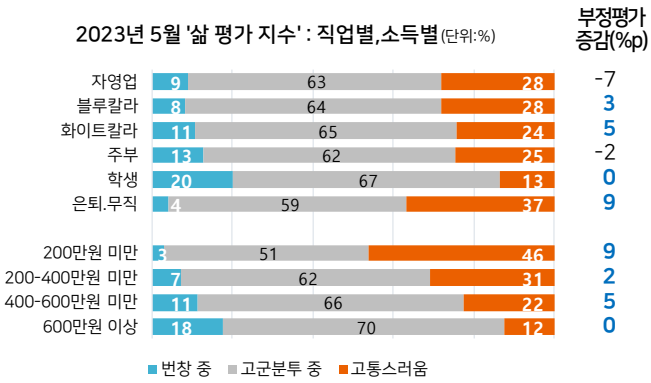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통스럽다'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중도층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 유형이 우세한 계층은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뿐인 가운데, △남자 18~20대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Kstat Point

☑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지난달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다른 계층보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긍정·부정 응답이 확연히 다른 점이 눈에 띄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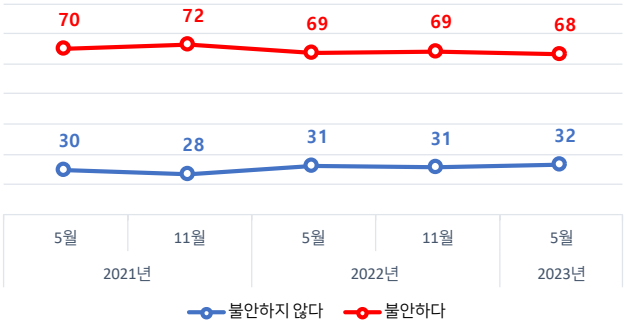
☑ 이는 소득이 자기 삶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인 점을 방증하는 대목임
: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삶이 고통스럽다'는 응답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음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46%)은 전체 계층 중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600만원 이상층(12%)과의 응답률 차이는 34%p에 달했음

5월 특별지표 : 국민의 '불안 의식'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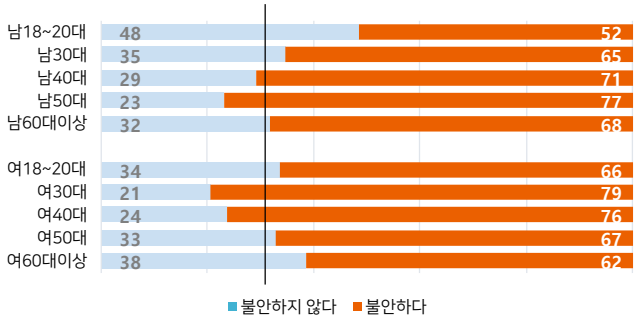
❑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68%

- 국민 대다수는 평소에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세요?"라는 질문에 '불안하지 않다' 32% vs '불안하다' 68%로 작년 5월 이후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보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남자 50대 △여자 3040세대 △충청 △중도층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높았음
-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60대 이상 △서울 △진보층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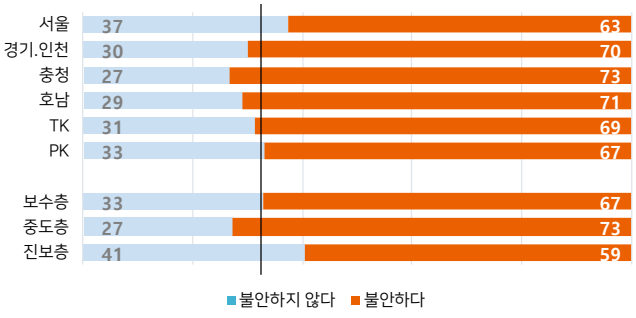
'삶과 미래' 불안 여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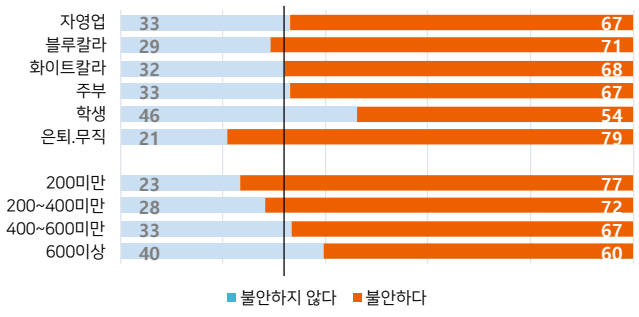
5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성/연령별
(자료:2023.05.07.조사,단위:%)



5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5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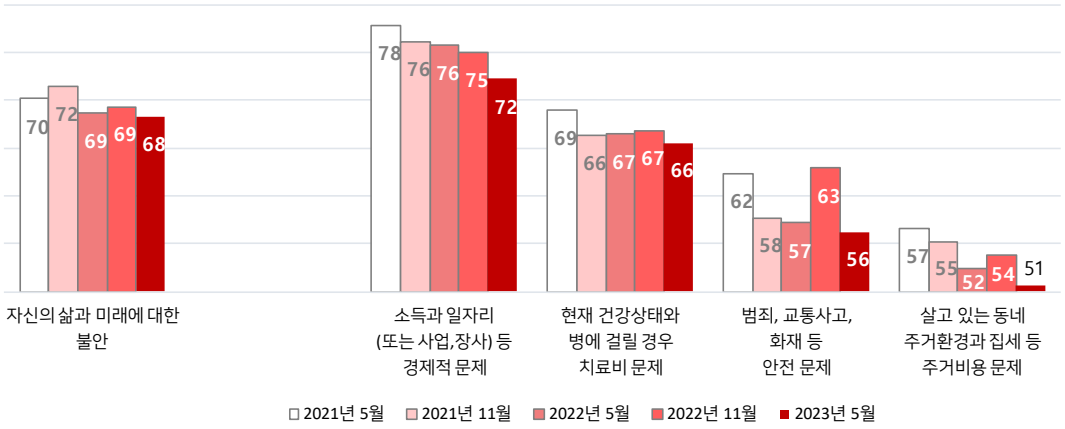
Kstat Point

☑ 국민의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약간 감소함
: 6개월 전인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남자 30대(-10%p)와 여자 18~20대(+8%p), 학생(+11%p) 등 젊은 층의 불안감이 큰 폭 감소했음
: 반면, 남자 60대 이상(+14%p), 여자 60대 이상(+9%p), 은퇴·무직자(+10%p) 등의 '불안하다' 응답이 대폭 상승했는데, 고령층과 은퇴했거나 무직 상태인 계층 등에서는 삶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72%로 가장 높아

- 현대 국가들이 국민 개개인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 또는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영역은 '경제', '건강', '주거', '안전' 등 4가지 영역임
  - 사람은 자기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일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불안감'을 느낌
- 4가지 삶의 영역별로 구분해 불안 여부를 질문한 결과,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72%)이 재작년 5월 이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임
- 다음으로 불안감이 높은 영역은 재작년 5월 이후와 동일하게 '현재 건강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66%),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56%), '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51%) 등 순으로 나타남
  -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 응답은 작년 11월 대비 대폭(-7%p) 하락함

'삶과 미래' 불안도 및 영역별 불안도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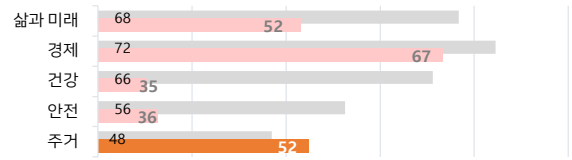
☑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작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함
: 성·연령별 경제 영역에 대한 불안감을 작년 11월과 비교해 살펴보면, 여자 18~20대(-16%p), 여자 50대(-6%p), 남자 30·40·50대(각 -12%p·-8%p·-6%p) 등에서 불안 심리가 크게 완화됨
: 여자 30대(+5%p), 남자·여자 60대 이상(각 +7%p·+5%p) 등은 반대로 불안 심리가 확대됨

☑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동조화되어 있는 만큼, 세계 경제 불안정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기둔화에 직면한 점과 단기에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와 관련한 불안은 지속해서 느껴왔고 앞으로도 느낄 것인 가운데, 한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 막연히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보다 개인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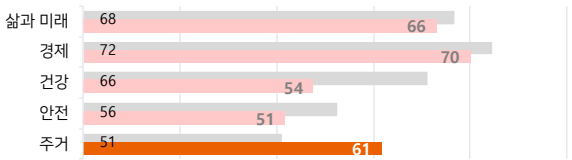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불안감 더 높아

- 전반적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성/연령별로 영역 전반에 나타난 불안감의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은 50대에서, 여성은 3040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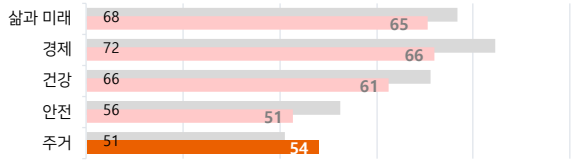
남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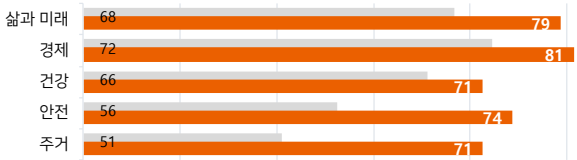
여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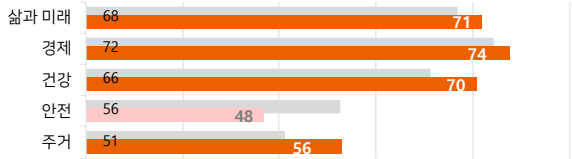
남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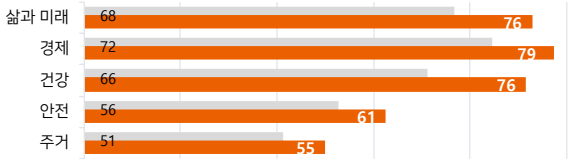
여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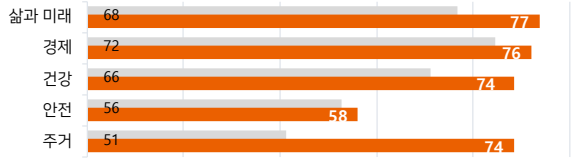
남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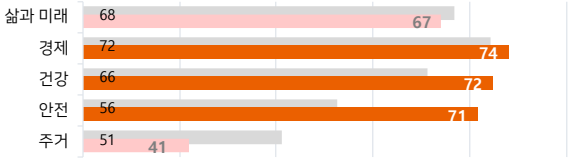
여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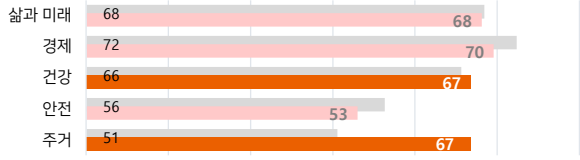
남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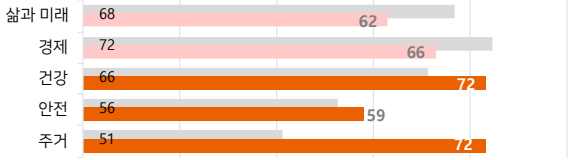
여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남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여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Kstat Point

☑ 남자 50대와 여자 3040세대는 자기 삶·미래와 4개 영역 모두에서 국민 전체보다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 18~20대와 남자 30대는 다른 성·연령대보다 전 영역에서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주거'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5호는『경기침체와 개인 삶 방향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3년 5월 25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